

## 발간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READING JESUS DAILY Q.T.를  
여러분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리딩지저스**를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2025년에는 **워크북**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나누며, 삶에 말씀을 적용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2026년,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이 우리의 관계와 대화, 삶의 중요한 선택 속에 스며들기를 원하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손길이 공동체를 새롭게 빛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기대합니다.

이번 **READING JESUS DAILY Q.T. 프로젝트**는 묵상을 돋기 위해 헌신한 여러 손길이 모여 이루어진 귀한 열매입니다. 말씀을 더 잘 나눌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글을 다듬고, 검수하고 배포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이 모여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귀한 수고를 감당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기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잠자던 은사와 열정을 깨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담보다는 ‘함께 걸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년 한 해가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서로를 살리며,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동중앙교회 담임목사 노진국

## READING JESUS DAILY Q.T. 사용 가이드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읽어갑니다.”

이 큐티책은 ‘많이 읽기’를 넘어, 말씀 앞에서 예배자로 **응답(Respond)**하는 하루를 돋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1월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 한 시간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과 삶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리듬입니다.

“7분으로 시작하고, 24분으로 깊어집니다.”

< 시간이 없을 때 : 초간단 7분 버전 >

- 1) 본문 다시 읽기 : 마음에 남는 단어에 동그라미(가능하면 한 줄로 이유 적기)
- 2) 오늘의 필사 구절 : 한 줄만 또박또박 써보기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 3) 묵상 길잡이 : 한 문장만 ‘오늘 내게 주는 통찰(인사이트)’로 밑줄
- 4) 묵상 질문 : 질문에 한 문장으로 답하기
- 5) 나의 기도 + 점검 : 짧게 기도로 맺고,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체크

< 깊어지는 : 하루의 십일조 24분 버전 >

- 1) 본문 다시 읽기 : ‘내 말로 정리하기’  
본문을 천천히 2번 읽고, 눈에 띄는 단어에 표시한 뒤 오늘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 2) 묵상 길잡이 : ‘새로운 관점 가지기’  
길잡이는 정답 해설이 아니라, 본문을 다시 보게 하는 렌즈입니다. 길잡이를 본 후,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봅니다.
- 3) 묵상 질문 :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통로’  
질문을 곱씹으며 말씀을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연결합니다.

#### 4) 감사와 적용 : '오늘 하루의 기록'

오늘 받은 은혜를 구체적 사건으로 적고, 말씀에 반응할 다짐과 결단을 기록합니다.

#### 5) 나의 기도 : '말씀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

묵상한 말씀을 기도로 바꾸고, 마지막에 '오늘의 한 문장 기도'를 덧붙여 봅니다.

#### 6) 나의 고백 : '공동체와 나눌 한 문장'

오늘의 Q.T.를 짧고 선명한 고백으로 압축합니다. 오른쪽의 QR코드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세요. 이 고백이 모이면 공동체 안에 '말씀의 언어'가 생깁니다. 다른 이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예시: 주님, 오늘도 내 길을 끝까지 늘 인도하소서)

####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 '내일을 준비하는 체크'

그날의 몰입도를 스스로 점검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 월간 도전 안내

한 달을 마무리할 때, Q.T.의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3D 프린팅 글자(기념 품)'를 한 개씩 순서대로 드립니다.

(1월 R, 2월 E, 3월 A... 이렇게 12개월 동안 READING JESUS를 완성합니다.)

이 선물은 '완벽하게 다 채운 사람'에게만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조금 빈 곳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췄다가도 다시 시작하는 발자국, 말씀 앞에 머물렀던 '흔적'입니다.

매달 한 글자를 받으며, 우리는 서로를 다시 말씀으로 초대하고 다음 달의 도전을 함께 시작합니다.

목표는 완독이 아니라, 매일 주님께 응답하는 예배의 지속입니다.

## READING JESUS 통독 일정

(교회 일정 함께 수록)

1 JAN

예배 Respond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신정 송구영신예배	2	3
4	5	6	7	8	9	10
신년감사주일						
11 리딩지저스 개강 큐티 세미나	12 창 1-4	13 창 5-8	14 창 9-12	15 창 13-16	16 창 17-20 금요 기도회 창 17:1	17 창 21-24
18 청지기 세미나 I	19 창 25-28	20 창 29-32	21 창 33-36	22 창 37-40	23 창 41-45 청소년부 겨울수련회 (~25) 금요기도회 창 45:8	24 창 46-50
25 청지기 세미나 II 청소년부 겨울수련회	26 출 1-6	27 출 7-12	28 출 13-19	29 출 20-26	30 출 27-33 출 34-40 유년부 겨울성경학교 (~2/1) 금요기도회 창 33:15	31

# 창세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의 형상으로 사람을 세우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은 스스로를 중심에 두는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약속을 남기시어,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역사 속에 심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고, 한 가족이 주의 백성으로 빛어져 가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언약을 지키고 길을 여는지 보여줍니다.

1월의 주제인 **예배**는, 창조주이신 언약의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그 임재를 구하고 부르심에 대한 고백과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 12

월요일

##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창세기 2장 1-3절

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 하나님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창 2:3)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 2) 묵상 길잡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신 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는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창조가 완전함을 선포하시며 우리의 시간 안에 멈춤의 리듬을 심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일을 멈출 때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출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습니다. 안식은 **내가 하나님의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받아들이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바쁜 손과 분주한 마음을 멈추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은 우리의 참 안식이시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히 4:9-10)

## 3) 묵상 질문

- 나는 무엇을 붙들고 쉬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4) 감사와 적용

## 5) 나의 기도

- 오늘 주어진 시간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멈추는 습관을 제 삶에 세워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 January

13

##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화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창세기 6장 8-9절, 18-22절

-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 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 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 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 20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 21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 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창 6:18)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 2) 묵상 길잡이

노아의 이야기는 **인간의 위대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먼저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6:8)로 문을 엽니다. 예배는 언제나 은혜가 먼저이며, 우리의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시대에도 언약을 세우시고(6:18), 그 언약 안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부르십니다.

이 언약에 대한 예배자의 응답은 단순하지만 확실합니다.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합니다**. 참된 예배는 감정의 고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태도입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방주는 심판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들어오라 부르시며, 은혜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벧전 3:20-21)

## 3) 묵상 질문

- 나는 지금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결심과 노력으로 예배를 유지하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 '말씀을 다 준행함'이라는 표현이 오늘 내 삶의 어느 곳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 4) 감사와 적용

## 5) 나의 기도

- 주님, 오늘 저의 예배가 은혜로 시작되고, 언약에 뿌리내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명령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노아처럼 조용한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 January

14

##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수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창 9-12장  
Reading JESUS

창세기 12장 7-9절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8 거기서 벤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벤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 12:8)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 2) 묵상 길잡이

예배는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 말씀하시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12:7)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땅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아직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말씀으로 주어진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 약속 앞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참된 예배는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뒤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드리는 언약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는 멈추는 자리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12:8). 오늘 우리의 예배도 환경보다 약속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을 주로 인정하며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관계적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10:13)며 라고 말합니다.

## 3) 묵상 질문

- 나는 예배를 상황이 좋아진 뒤에만 드리려 하진 않나요? 오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리는 어디인가요? (가정/일터/관계)

## 4) 감사와 적용

## 5) 나의 기도

- 주님,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약속 앞에서도 제단을 쌓듯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자리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제 예배가 환경이 아니라 약속에 불들리게 하소서.

##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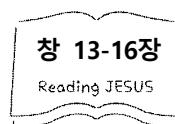
1 January

15

목요일

## 처음 자리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창세기 13장 1-4절

- 1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 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 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벤엘에 이르며 벤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 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 13:4)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아브람은 한 때 믿음의 길을 벗어나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실수했습니다(창12:10-2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벨엘과 아이 사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자리로 이끄십니다(13:3-4).

예배는 새로운 결심보다 돌이킴의 자리, 첫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일 때가 많습니다. 삶이 흩어지고 마음이 흐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처음 예배하던 자리**로 부르십니다. 참된 예배는 나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브람처럼 우리도 **다시 한 번 제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은 우리의 참 제단이십니다(히13:10).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이 되어(롬5:10), 죄 사함과 회복의 은혜로 다시 예배하게 하십니다.

**3) 묵상 질문**

- 나는 지금 어떤 이유로 **처음 제단**에서 멀어져 있나요?
- 오늘 다시 돌아가야 할 예배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4) 감사와 적용****5) 나의 기도**

• 주님, 저를 다시 제단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진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나의 실패보다 더 크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불들게 하소서.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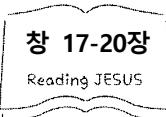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6**

금요일

**언약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창세기 17장 1-7절**

- 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 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 3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 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 17:1)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하나님께서는 구십구세였던 아브람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선언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17:1)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도덕적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아브람의 반응은 옆드림(17:3)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첫 태도는 설명이나 변명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경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이라 부르시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예배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 예수님이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이름과 새 삶을 부여받은 언약 백성입니다(계2:17).

**3) 묵상 질문**

- 나는 오늘 어떤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고 있나요?
-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오늘 내 선택과 말에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4) 감사와 적용****5) 나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를 언약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새 정체성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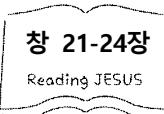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7****대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토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창세기 22장 7-14절**

- 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 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 9 하나님의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 11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 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창 22:8)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이 본문은 '누가 더 위대한가'가 아닌, 누가 진정한 예배의 주인이신가를 보여 줍니다. 이삭의 질문은 너무 솔직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7절) 예배를 드리려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비어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확신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8절)

예배는 결국 내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를 보고 볼드는 자리입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이삭 대신 드려진 솟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요1:29).

**3) 묵상 질문**

- 오늘 내가 불들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4) 감사와 적용****5) 나의 기도**

- 여호와 이례 되시는 하나님, 제게 없는 것을 탓하며 불안해하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제단 위에 제 불안이 아니라 신뢰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오늘도 대신 드려진 예수님을 불들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6) 나의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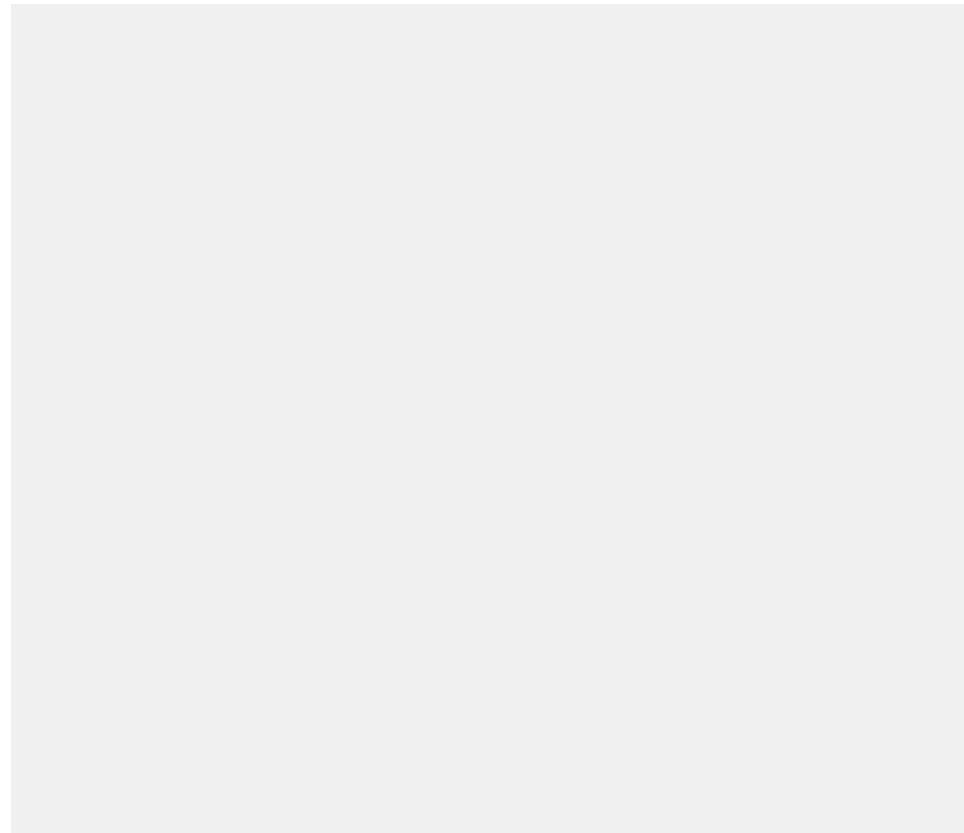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8****주일에 만나는 말씀 (SUNDAY WORD)**

일요일

**설교노트****1) 가정/구역 3분 나눔 (SUNDAY TALK)**

-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 이번 주 은혜에 응답할 작은 순종 하나는 무엇인가요?

## 창세기, 예배의 씨앗들

우리가 Q.T.를 하는 목적은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책이며, 그 흐름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 곧 예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 1) 창세기를 통해 드러나는 예배의 3가지 원리

#### ①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노아(창6:8), 아브람(창12:7), 야곱(창28:16)... 이 모든 사건은 공통적으로 인간이 예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찾아오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사람이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 ② 예배는 약속을 불드는 자리입니다

창세기는 완성된 현실보다 말씀으로 주어진 약속을 따라 걷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인물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상황이 좋아진 뒤의 감사만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오늘을 걸어가겠다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 ③ 예배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창세기의 믿음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과 순종, 용서와 화해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창39:9)라는 고백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창50:19)라는 고백은 예배가 삶으로 번진 열매입니다. 예배는 **주일 한 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입니다.**

### 2) 창세기에 심긴 '예수님 씨앗' 한눈에 보기

창세기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속사의 이정표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 창3:15: 죄로 무너진 자리에도 '구원의 약속'이 시작됨
- 창12:1-3: 복은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만민을 향해 열림
- 창22:8, 13-14: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심'—대속의 그림자
- 창28:12, 16-17 (요1:51):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길
- 창50:20 (행2:23-24): 사람의 악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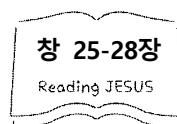
창세기는 예배와 구속의 근본 원리를 함께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며, 그 삶의 중심에는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신실함에 대한 반응(Respond)입니다.

19

## 벧엘로 바꾸시는 하나님

월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창세기 28장 16-19절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 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 28:16)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야곱은 형을 속였고, 분열된 가정의 한복판에서 도망자가 되어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여기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16절). 예배는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임재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자리를 바꾸시는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돌베개가 전부였던 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도 주님의 계심으로 루스가 벤엘이 되는 전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참 사다리이시며 (요1:51), 우리 가운데 임하신 참 성전이십니다(요2:19-21).

**3) 묵상 질문**

-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의 자리'에 있나요? 그 자리에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5) 나의 기도**

- 주님, 제가 알지 못하던 자리에도 먼저 계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망자 같은 마음으로 지나던 길을 벤엘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제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두려움이 경외로 바뀌게 하시고, 평범한 하루가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하소서.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 January

**20**

화요일

**약속을 불들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창 29-32장

Reading JESUS

**창세기 32장 9-12절, 26절**

- 9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 10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 11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 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 12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이 하리라 하셨나이다
-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 32:26)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 2) 묵상 길잡이

야곱은 지금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과거의 죄책감, 미래의 불안,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때 야곱이 불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부릅니다(9절). 예배는 문제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더 이상 계산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26절)라고 간절히 불잡습니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절박한 불듦에서 시작됩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야곱이 약속을 불들고 매달렸다면,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들기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불드십니다(요 10:28).

## 3) 묵상 질문

-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 앞에서 오늘 내가 불들 하나님의 약속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 4) 감사와 적용

## 5) 나의 기도

- 하나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상황을 불들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불들게 하소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말씀을 근거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축복을 구하며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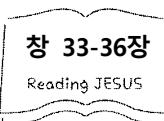
1 January

21

## 예배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수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창세기 35장 1-5절

- 1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 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난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 2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 3 우리가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 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 5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창 35:3)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으라'(1절). 벤엘은 야곱이 도망자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했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 이후의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배로 부르십니다.

야곱은 그 부르심 앞에서 가족의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옷을 바꾸어 입게 합니다(2절).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3절). 예배는 기억의 자리이자, 은혜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요2:15-17) 예배의 중심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길로 부르심을 받습니다(살전1:9).

**3) 묵상 질문**

- 오늘 하나님께서 '벤엘로 올라가라'고 부르실 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5) 나의 기도**

- 하나님, 저를 다시 벤엘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예배하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나누어 가진 우상들을 드러내어 버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다시 시작되게 하소서.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22**

목요일

**거룩을 지키시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창 37-40장  
Reading JESUS

창세기 39장 7-9절

**7**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 39:9)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 2) 묵상 길잡이

요셉의 싸움은 사람 앞에서의 평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9절). 유혹을 거절하는 이유가 들킬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주일 한 시간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입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요셉은 유혹을 피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을 정면으로 이기시고(마4:1-11)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승리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선택할 힘을 얻습니다(고전10:13).

## 3) 묵상 질문

- 내가 가장 자주 넘어지는 유혹은 무엇인가요? 그 유혹 앞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리 두기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 4) 감사와 적용

## 5) 나의 기도

-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의 전쟁터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게 하소서. 반복되는 유혹 앞에서 지혜롭게 거리를 두게 하시고, 필요할 때는 요셉처럼 즉시 도망할 용기를 주소서. 오늘 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 January

23

해석을 바꾸시는 하나님

금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창 41-45장  
 Reading JESUS

창세기 45장 4-8절

- 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 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  
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  
이다
- 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 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 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의시라 하나  
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의시라 (창 45:8)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 사건은 분명히 사람의 죄였고, 요셉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형들의 악'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앞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5절).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읽는 것입니다.

사건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믿는 관점의 전환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요셉이 형들의 죄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의 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행2:23-24).

**3) 묵상 질문**

- 내가 아직도 **사람의 일**로만 불들고 있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 사건을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4) 감사와 적용****5) 나의 기도**

- 하나님, 제 삶의 사건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읽게 하소서. 상처와 실패와 억울함 속에서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하게 하시고, 원망 대신 예배자의 언어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제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소서.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 January

**24****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토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창세기 50장 19-21절**

-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 50:20)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요셉의 마지막 고백은 복수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이까'(19절).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고백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해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20절). 사람의 악은 분명히 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갇히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예배는 고난을 지워버리는 마술이 아니라, 고난 위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서는 믿음으로 열매 맺습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우리가 죄로 예수님을 해하려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십자가를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바꾸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롬5:8).

**3) 묵상 질문**

- 지금 내가 판결을 내리고 있는 사람, 상황은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5) 나의 기도**

-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게 하소서. 상처가 남아 있어도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게 하시고, 원망 대신 위로의 말을 선택하게 하소서. 제 삶이 예배의 열매로 이어져, 오늘 누군가를 살리는 용서와 돌봄의 길을 걷게 하소서.

**6) 나의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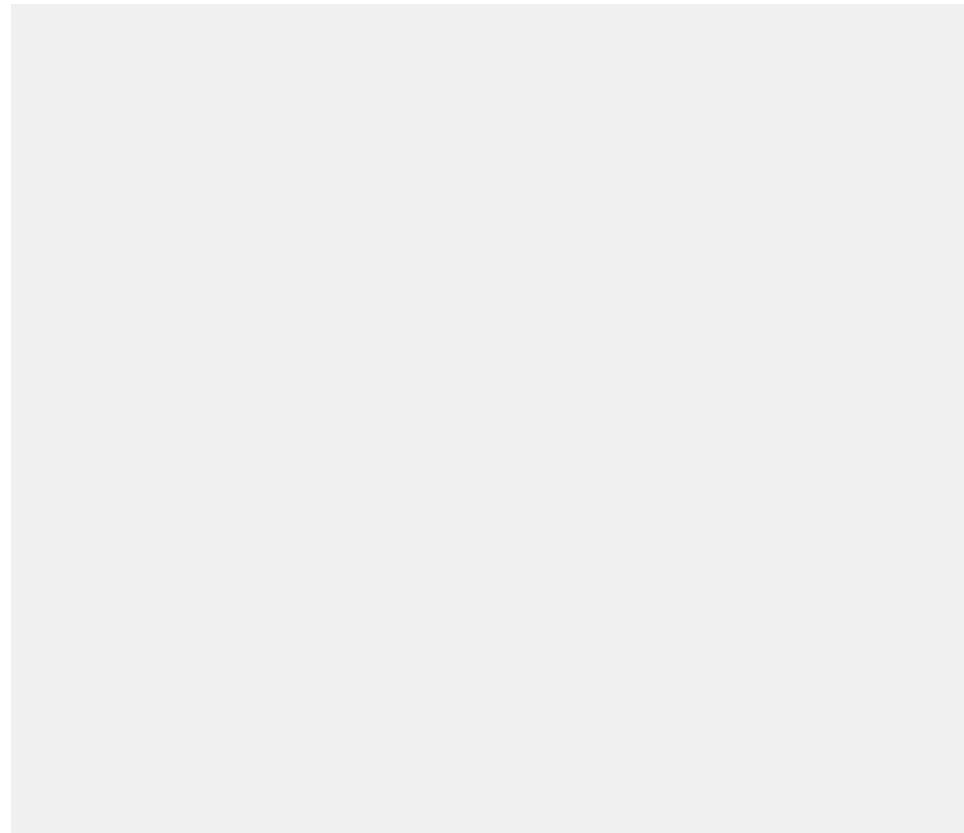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25****주일에 만나는 말씀 (SUNDAY WORD)**

일요일

**설교노트****1) 가정/구역 3분 나눔 (SUNDAY TALK)**

-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 이번 주 은혜에 응답할 작은 순종 하나는 무엇인가요?

#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노예의 땅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은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열 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 '나는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흥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원수의 힘에서 끊어 내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떤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가르치십니다.

성막은 함께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 주며,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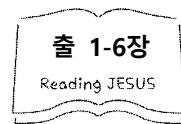
예배는 언약으로 부르시고 임재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출 33:15), 거룩을 향해 부르심에 응답하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26

월요일

## 함께하심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 출애굽기 3장 1-4절, 10-12절

- 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 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 3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아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 12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 3:12)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자리로 바꾸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드는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로 찾아오셔서 평범한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11절)라는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12절)를 불들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길입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마 1:23),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28:20).

**3) 묵상 질문**

- 오늘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주저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문장 약속은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5) 나의 기도**

• 하나님, 광야 같은 자리에도 먼저 찾아오셔서 저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자격 없고 두렵지만, 함께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불들어 담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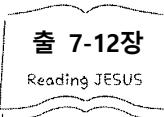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27

**어린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화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출애굽기 12장 7-11절

- 7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 8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 9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 10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 11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그 피를 ...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출 12:7)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유월절 예배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끼고, 신을 신고, 지팡 이를 든 채 급히 먹습니다(11절). 이 예배는 단지 감동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떠날 준비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 하나님의 길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감동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담대히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 예수님이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고전5:7) 그 피로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고 새 출애굽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3) 묵상 질문**

- 나는 지금 무엇에서 출애굽해야 하나요?
- 오늘 예배가 내 삶에서 떠날 준비를 하게 하고 있나요?

**4) 감사와 적용****5) 나의 기도**

•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의 피 아래 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제 예배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떠날 준비를 하게 하소서. 죄와 습관과 두려움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28****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수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출애굽기 19장 4-6절**

-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 19:6)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 2) 묵상 길잡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뒤, 시내산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6절).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고, 동시에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즉 예배자는 주일에만 예배당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는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불드는 자리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예배자로 부르심 받은 존재입니다.

• 예수님이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벧전 2:9),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롬 12:1).

## 3) 묵상 질문

• 제사장 나라로서 오늘 내가 드러내야 할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 4) 감사와 적용

## 5) 나의 기도

• 하나님, 저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주께로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정체성을 불들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거룩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 January

29

목요일

##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출 20-26장

Reading JESUS

출애굽기 20장 1-6절

- 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출 20:3)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십계명의 첫 말씀은 '하지 마라'로 시작되는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2절).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예배의 중심을 바로 세우십니다. 예배는 규칙을 지키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하신 참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새 언약의 예배를 여셨습니다(눅4:18, 히 10:19-22).

**3) 묵상 질문**

- 요즘 내 마음에서 **하나님만큼**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5) 나의 기도**

- 하나님, 저를 종 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마음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과 욕심과 비교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질투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30****우상을 깨뜨리게 하시는 하나님**

금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출 27-33장

Reading JESUS

**출애굽기 32장 7-8절, 31-22절**

-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 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 31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 32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출 32:32)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금송아지 사건은 예배가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직후, 속히 길을 떠나(8절)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예배했습니다(8절). 우상숭배는 단지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다루려는 시도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신으로 삼을 때, 마음은 잠시 편안할지 몰라도 예배는 왜곡되고, 결국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 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막10:45) 참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히7:25).

**3) 묵상 질문**

-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불드는 작은 금송아지는 무엇인가요?
- 그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가지 회개의 실천은 무엇인가요?

**4) 감사와 적용****5) 나의 기도**

- 하나님, 제 마음이 얼마나 쉽게 우상을 만들고 예배를 왜곡하는지 고백합니다. 주님을 내 방식대로 다루려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세처럼 주 앞에 서서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중보의 은혜로 예배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제 마음의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31****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토요일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출 34-40장

Reading JESUS

**출애굽기 40장 34-38절**

- 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 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 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 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1) 본문 다시 읽기**

- **한 단어 동그라미** : 본문에서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 **오늘의 필사 구절** : (오늘 통독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셔도 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 40:34)

- **내 말로 한 문장** : 본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해 보세요.

**2) 묵상 길잡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로 끝납니다. 성막이 완공되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34절). 예배의 목적은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걸음을 결정합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이셨습니다(38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 **예수님 연결 (복음 한 줄)** :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요1:14).

**3) 묵상 질문**

- 나는 지금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무엇으로 결정하고 있나요?

**4) 감사와 적용****5) 나의 기도**

•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예배가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리듬이 되게 하소서. 구름이 떠오를 때 나아가고, 머무를 때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며,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6) 나의 고백**

묵상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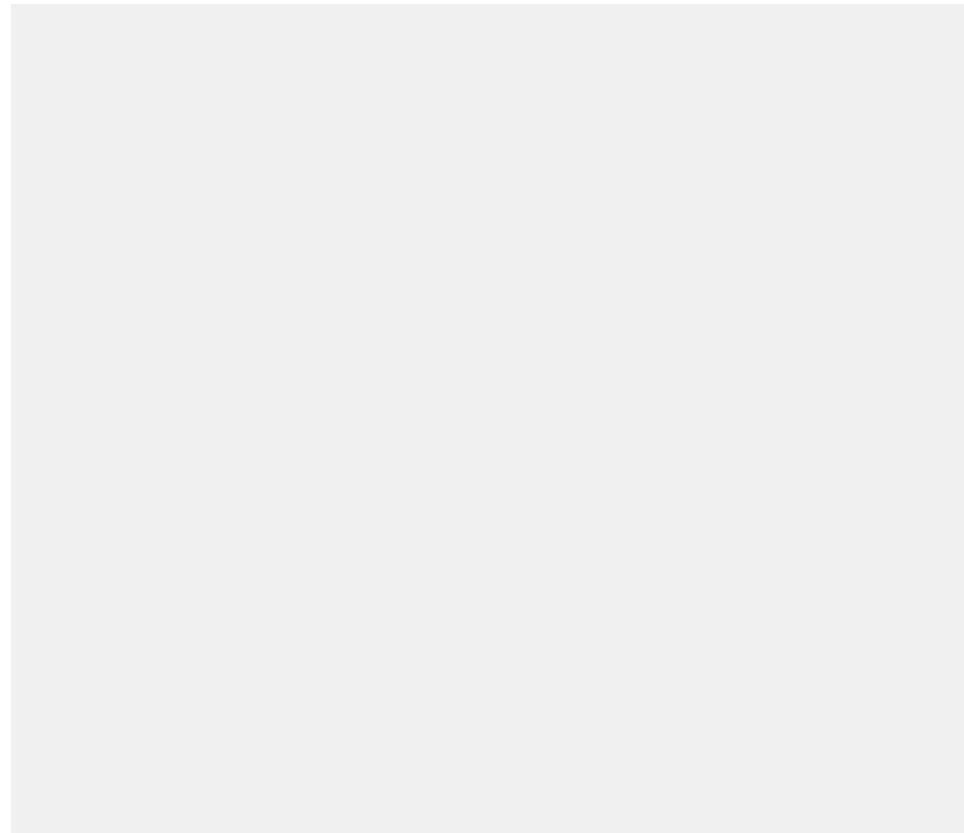
**7) 말씀과 함께한 하루 점검**

오늘 나는 말씀 안에 :  잘 머물렀다  보통이다  거의 머무르지 못했다

1

**주일에 만나는 말씀 (SUNDAY WORD)**

일요일

**설교노트****1) 가정/구역 3분 나눔 (SUNDAY TALK)**

-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 이번 주 은혜에 응답할 작은 순종 하나는 무엇인가요?

## 구름 기둥의 사랑을 기억하라 (출 13:21-22)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에게 지도가 아닌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동행은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신다는 언약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확실할 때만** 걸으려 합니다. 낮처럼 밝은 때에는 믿음이 쉬워 보이지만, 밤처럼 어둠이 오면 멈추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도 불기둥을 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엇보다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치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장차 오실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달의 Q.T.를 완벽히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 다시 한 걸음을 떼는 것. 주님은 오늘도 앞서가시고, 곁에 머무시며,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십니다.

### READING JESUS DAILY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읽어갑니다.

**말씀으로 365-**  
**읽는 교회를 넘어, 말씀과 함께 사는 교회로.**

※ 월말에 Q.T.의 흔적(책/어플)을 가지고 부스에 오시면, 월별로 1글자씩 드립니다.  
12달을 다 모으면 REDING JESUS가 됩니다. (1월-R, 2월-E, 3월-A, ~12월-S)

## 1월, 평양에서 타오른 회개의 불길

-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에게,  
1907년 1월이 말해주는 것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와 장로교 신학교에서 약 1,500명이 모인 성경대회(사경회) 중, 길선주 장로가 단 위에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자, 회개의 울음과 통회의 기도가 공동체 안에 번져 나갔습니다. 그 회개는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몇 주간 이어지는 **돌이킴의 물결이** 되었고, 평양과 북부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1907년 평양대부흥이라 부릅니다. 한국교회는 이때를 새벽기도·철야기도·통성기도 같은 영성의 뿌리가 세워진 시기로 기억합니다.

### 1. 창·출의 이야기처럼, ‘출애굽’은 응답으로 시작된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죄가 퍼져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언약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언약과 율법과 성막을 통해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평양대부흥은 한국교회가 죄와 옛 삶의 방식에서 돌아가는 영적 출애굽의 순간이었습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했고, 관계의 갈등을 회개했으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실 때, 공동체는 예배로 **응답(RESPOND)**했습니다.

### 2. 부흥의 출발점은 ‘말씀’이었다

평양대부흥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성경 사경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해설하고 함께 읽으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가 2026년 1월부터 Q.T.를 시작하는 것—날마다 본문을 읽고, 묵상 포인트를 붙들고, 한 줄 결단과 짧은 기도를 적는 것—은 그때의 ‘사경회’를 오늘 일상으로 가져오는 작은 훈련일지 모릅니다. 출애굽이 공간의 이동이었다면, 회개는 마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숨은 죄와 굳은 마음을 드러내시고, 공동체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 3.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출40:34-38). 1907년 평양의 예배 가운데 임한 성령의 역사는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구역도 작은 성막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 4. 1월, 우리가 물들 질문(예배로 응답하기)

- ▷ 나는 무엇으로부터 출애굽해야 하는가?  
(죄된 습관, 오래된 상처, 집착, 미움, 비교하는 마음...)
- ▷ 우리 교회/구역/가정은 어디에서 회개의 회복이 필요한가?
- ▷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은 내 삶 어디에 마련되어 있는가?

1907년의 사람들은 **집회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이어갔습니다. 2026년 1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르시고 임재로 이끄실 때, 예배로 **응답(Respond)**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 ◎ 1월 교회사 한 줄

##### ▶ 1484.1.1. 스위스 종교개혁자 쪼빙글리 탄생

'교회는 언제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 ▶ 1956.1.8 에콰도르 '오카(와오라니) 선교' 순교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컬리, 피터 플레밍, 로저 유더리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은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히11:26).

##### ▶ 1521.1.28 보름스 제국의회(Diet of Worms) 개회

'황제 앞에서도 말씀을 불든 루터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다.'

### READING JESUS DAILY Q.T.

####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읽어갑니다.

말씀으로 365 — 읽는 교회를 넘어, 말씀과 함께 사는 교회로.

#### '말씀의 길, 다시 시작합니다'

##### ▶ Welcome (환영)

새해 첫 구역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부터 리딩지저스는 **통독**에서 **Q.T.**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은 **잘하는 방법**을 배우기보다, 함께 시작할 마음을 세우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 ▶ Word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 ▷ 한 문장 묵상

말씀은 길을 **설명**하기보다, 오늘 한 걸음을 **비춰** 주시는 빛입니다.

##### ▶ 나눔 | 말씀을 읽는 삶에서 사는 삶으로

2026년부터 교회는 말씀을 주일 중심 → 매일 매일의 일상 중심으로 확장하려 합니다.

목표는 완벽한 기록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르는 하루의 반복입니다.

##### ▷ 함께 나눔

◦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 Q.T.를 시작하며 내 마음에 있는 기대와 부담은 무엇인가요?

##### ▶ 광고 : Q.T.는 언제부터 하나요?

##### ▷ 이번 주 :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주간(준비 주간)

◦ 주제 : "주여! 열어 주옵소서"

◦ 일정 : 1월 5~9일(월~금) 오전 5:45 / 본당(2층)

##### ▷ 다음 주부터: READING JESUS DAILY Q.T. 시작!

◦ 못 한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 우리는 완벽하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걷기를 선택합니다.

## READING JESUS DAILY Q.T.와 함께 걷는 법

### ▶ 큐티책 함께 펼쳐보기 (체험)

이번 주는 Q.T.를 잘해야 하는 주가 아닙니다.

Q.T.가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트는 주간입니다.

#### ▶ 펼쳐보기

- 이 책에서 가장 부담이 덜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 내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최소 루틴은 무엇인가요?
- 예) 주 3회 / 주 5회 / 매일 7분 / 하루의 십일조 24분

### ▶ QR 공유 안내 | '한 문장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Q.T. 마지막에 있는 '나의 고백'은 QR을 통해 공동체와 나눌 수 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과한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 ▶ 실습하기

- 2026년 새로운 다짐을 완성 후 QR페이지에 작성해 주세요.
- QR페이지에 있는 누군가의 고백을 읽어주세요.



### ▶ 월간 도전 안내

매달 마무리할 때, Q.T.의 흔적을 들고 부스에 오시면  
'3D 프린팅 글자(기념품)'를 한 글자씩 드립니다. (1월은 'R')

- 다채운 사람만을 위한 보상이 아닙니다.
- 중요한 것은 멈췄다가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 ▶ 기도 제목

1. 말씀이 부담이 아닌 은혜가 되게 하소서.
2.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믿음을 주소서.
3. 우리 구역이 말씀으로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4. 2026년,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말씀의 빛으로 인도받게 하소서.

### ▶ 마침 기도

## “발간소감”

**▶ 는**은 오후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커피 향이 따스하게 손을 덥히기 시작했다. 잠시 전, 시간들 속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다.

새가족부실에서 진행된 첫 모임.

뭔가 일상적이지 않을 것 같은 기대감.

이어지는 이야기들, 나눔이 그 작은 공간을 채웠다.

담당 목사님과 이어지는 대화들, 그 안에서, 마음속의 것들을 꺼내어 살펴보고 내어보기도 하였다.

**‘성도간 교제를 위한 문화공간, 장이 되면 좋겠다’는 목사님 말씀을  
꺼내어 본다. 공동체와 함께한다는 것, 같이 꿈을 꾸는 것은 늘 설레게  
하는 무언가 있다. READING JESUS.. 성경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담임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줄을 치고 색칠하고 읽었던 성경이 다시 마음속에 떠오른다. 말씀을 읽으며 작은 여백에 다시 연필로, 색연필로 같이 걷고 일어서고 싶어졌다.

하나씩 만들어 가자는 다짐으로 시작했던 첫 출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들로 시작된 Q.T.발행 준비모임.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씩 발견하고 깨닫는 기쁨이 찾아왔다.

한 명씩, 그리고 일의 나눔을 진행해 갈 때마다, 주어지는 만남과 하나님께서 예비한 손길들로 하나씩 퍼즐을 맞춰주시고 있었다. 놀라움으로!

“그의 말씀에서는 땀 냄새가 났어요, 우리에게 흐르는 그 땀 말이죠, 그의 말은 가깝고 우릴 닮아 있었죠, 가난한 우리네 살결 같은 얘기  
... 우리 가진 허물과 깊이 패인 아픔들도, 이미 알고 있는 듯 모두 이해하는 듯,  
그는 우리와 그렇게 나란히 걸었죠, 정오의 그 길과 광야의 긴 밤들을, 함께 뒤엉  
켜 보낸 그 푸른 기억들은, 아직 손끝에 생생합니다  
... 우리 발을 씻기려 무릎을 굽히실 때, 함께 울고 웃었던 그 푸른 기억들은 아직  
눈 앞에 생생합니다.” – ‘갈릴리사람예수’ 한웅재 –

일을 준비해 가며 마음에 다가온 찬양이 귓가에 맴돈다.

우리네 삶 속에 예수님과 같이 걷고 웃고, 성도 간에 나누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2026년도, 주님과 나란히 함께할 하루 하루 기대해 봅니다.

**Dream Factory 공장장 박 승업**